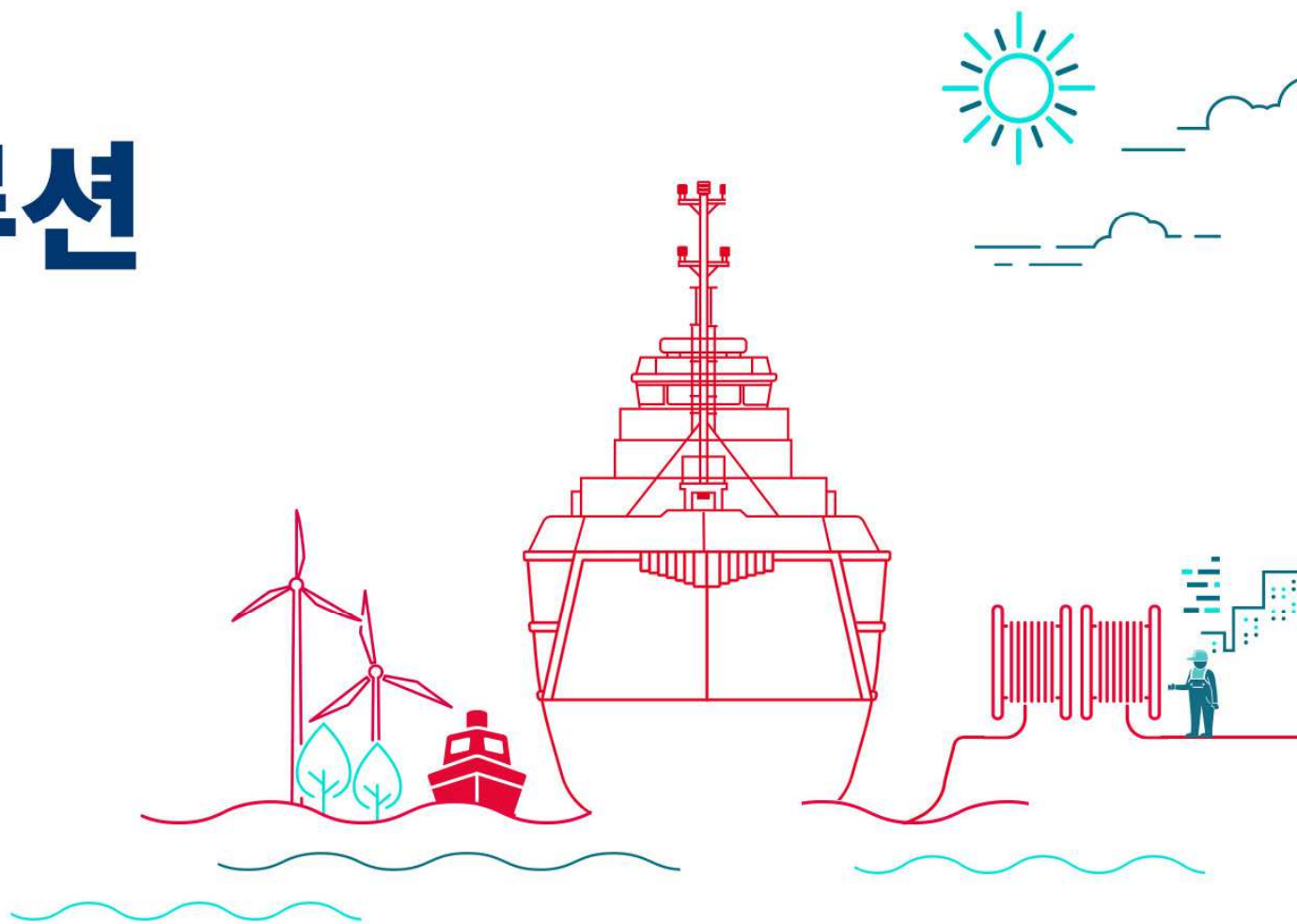


모멘텀의 변화

LS마린솔루션

VALUE - UP DAY 2024

LS마린솔루션



S E S S I O N

01

Momentum Effect

“모멘텀이란 눈덩이처럼 저절로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
기업이 스스로 물살을 만드는 것”

장 클로드 라레슈 인시아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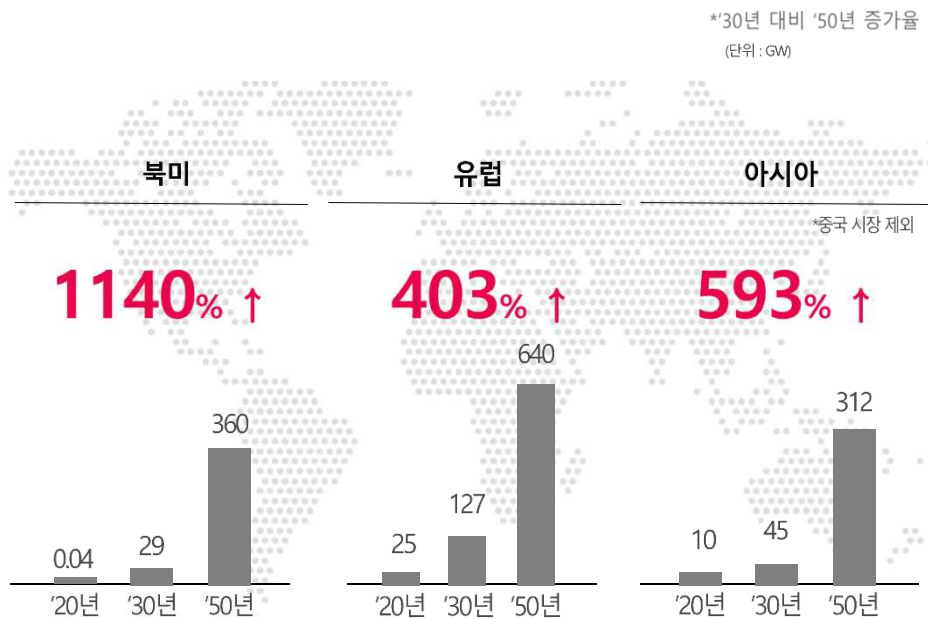


사업 모멘텀 변화의 중심



해상풍력 및 해상그리드 시장 확대

글로벌 해상풍력 수요 증가



출처 : 유럽 에너지 자문업체 Enerdata 2022

송/배전망의 고도화를 위한 해상그리드 대두

영국-아이슬란드 해저 인터컨넥션 프로젝트

아이슬란드의 친환경
전력(수열, 지열)을
영국으로 송전



싱가포르 주변국 에너지 연계 프로젝트

2025년까지 총
4GW를 주변국으로
부터 수입 계획



베트남 에너지 Highway

북부지역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남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상 에너지
하이웨이를 통해 송전하는
계획



서해안 에너지 Highway

제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 송전



시장의 기회 | 글로벌 해저 전력망 사업

한전 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서해안-수도권 HVDC 구축 계획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베트남 전력 공급 및 주변국 연계 시공 확대



국내 해상풍력사업 참여

연암뉴스

NEWS

50조원 해상풍력 입찰시장 열린다...

2024.08.08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물량...10월 입찰공고
국내 공급망 기여·유지보수 역량 등 비가격지표 배점 확대
비가격지표 평가로 1차 컷오프 후 2차 가격점수 합산

해저 인터넷 전쟁

글로벌 트래픽 증가, 빅테크 기업 사업 확대

REPORT

글로벌 트래픽 증가

- AI서버 시장규모, 2032년까지 연평균 18% 이상 성장률 전망
- 2030년 6G 상용화에 따라, 통신 데이터 트래픽 증가 트래픽 수요 급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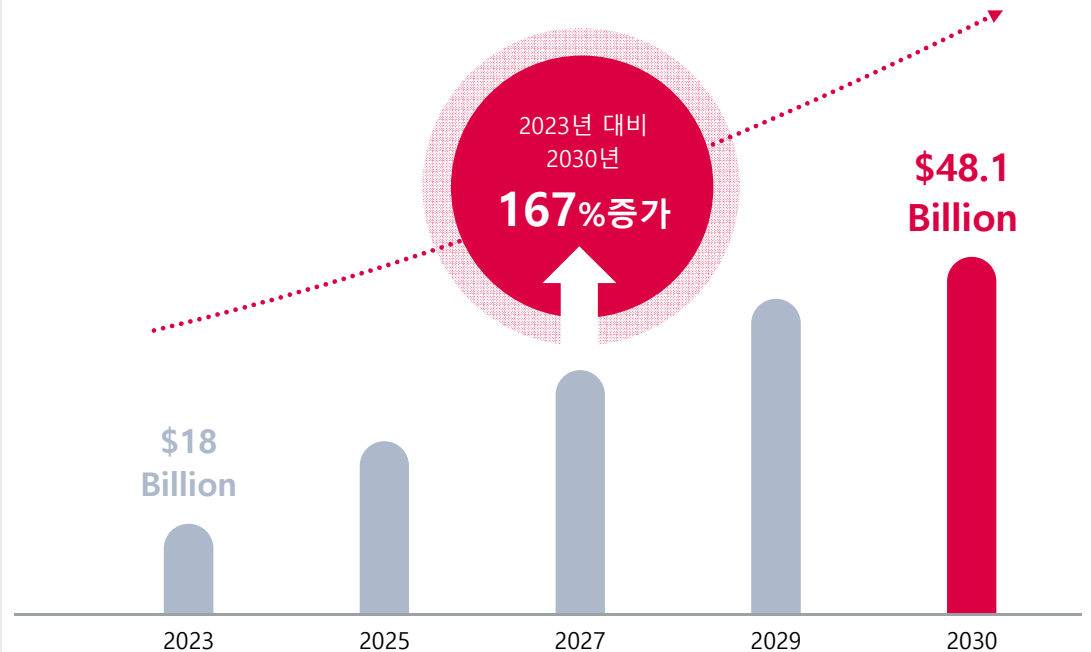
빅테크 기업 사업 확대

- 영상 스트리밍 관련 데이터 사용 폭증으로 빅테크4 해저케이블 자체 구축 기조
- 빅테크4, '24년~'25년 해저케이블 관련 \$239billion 투자 진행 중



출처 GMI보고서, Meta

글로벌 해저 통신 케이블 성장 전망



출처 : Verified Market Research

시장의 기회 | 글로벌 해저 통신망 사업

글로벌 트래픽 증가로 국가간 통신망 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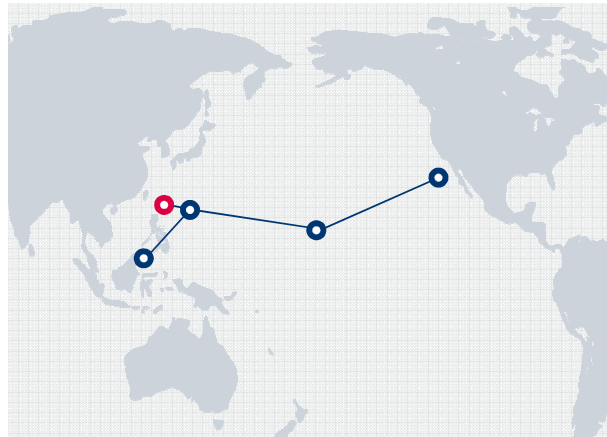
아시아 통신사의 ALPHA 프로젝트

한국(KT),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주요
대표통신기업 참여



아시아·미국 통신사의 E2A 프로젝트

한국(SKB),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주요 대표통신기업 참여



한·일 해저광네트워크 건설 사업

한국(Dream line), 일본(Arteria), MS,
Amazon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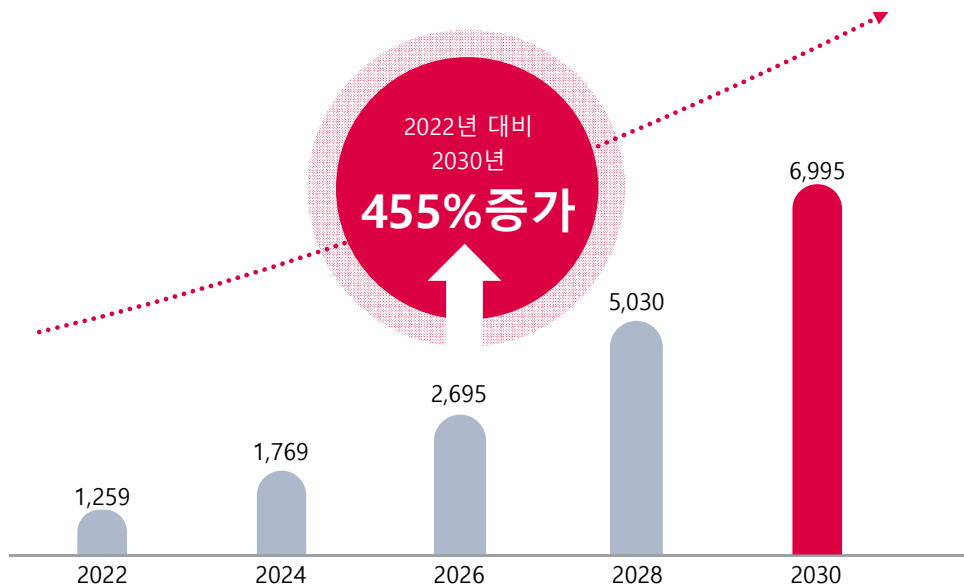


시장의 기회 | 해상풍력 시공 확대

아시아·국내 시장 해상풍력 시공 시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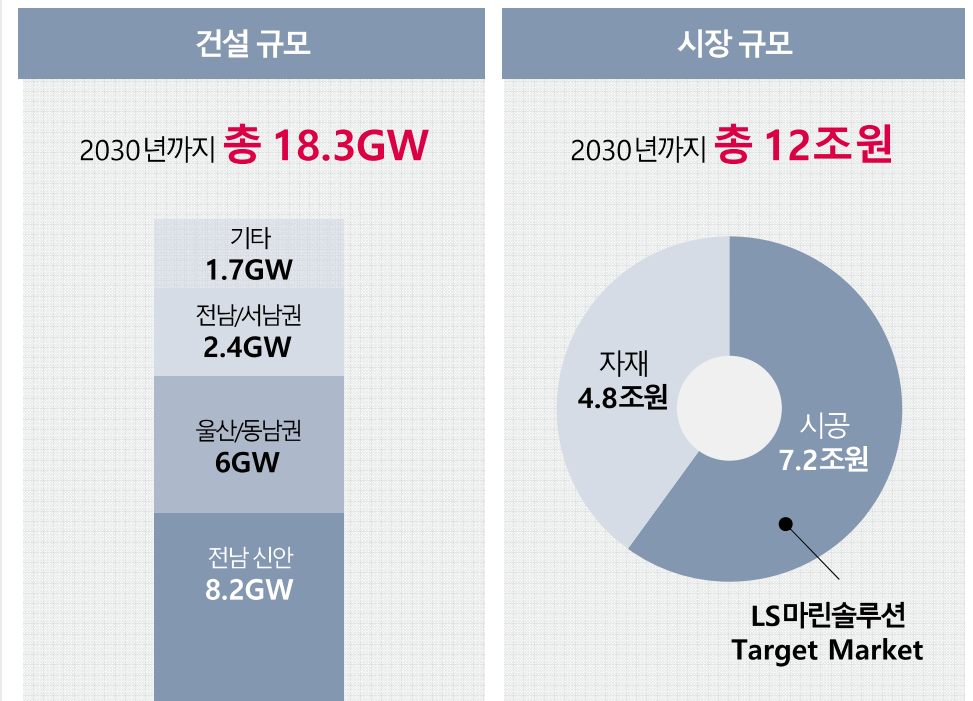
아시아 태평양 신규 해상풍력 설비 설치 용량

(단위 : MV)



출처 : GWEC, 2023

국내 해상풍력 시공 시장 규모



출처 : KDB미래전략연구소

전력케이블 포설 선박 아시아·국내 시장 Shortage

중국 해저케이블 선박 배척

NEWS

“중국 해저케이블 수리선박 조심해”...
미국,구글·메타에 경고한 이유 ”

“해저인터넷 수리 中선박 경계하라”...美,
구글등에 경고

미국,중국 해저 케이블 수리선의 스파이
활동 의혹 제기...안보 위협 경고

정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시 ‘안보·공공역할
가점준다

글로벌 해저전력케이블 포설 선박 현황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 포설 선박



아시아·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LS마린솔루션 경쟁력 01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선박 보유

국내 유일
매설 전용선 및 매설 장비 보유

미래로호

QT1500



국내 최대
포설선 보유

세계로호

GL2030



25년 이상의 운용 노하우

아시아 유지보수 시장 선점으로 고정 수익 창출

시공 57,000km 아·태 남미 북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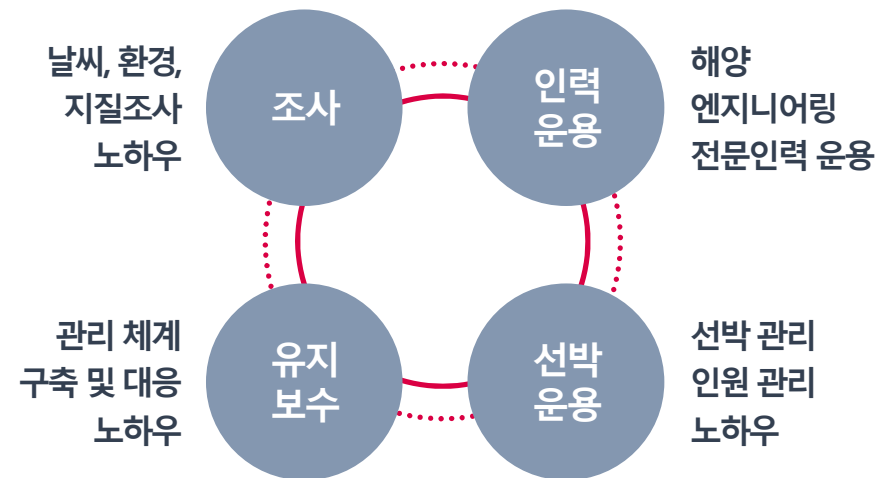
유지보수 1997년부터 수행 연간 150억 수익

주요 수행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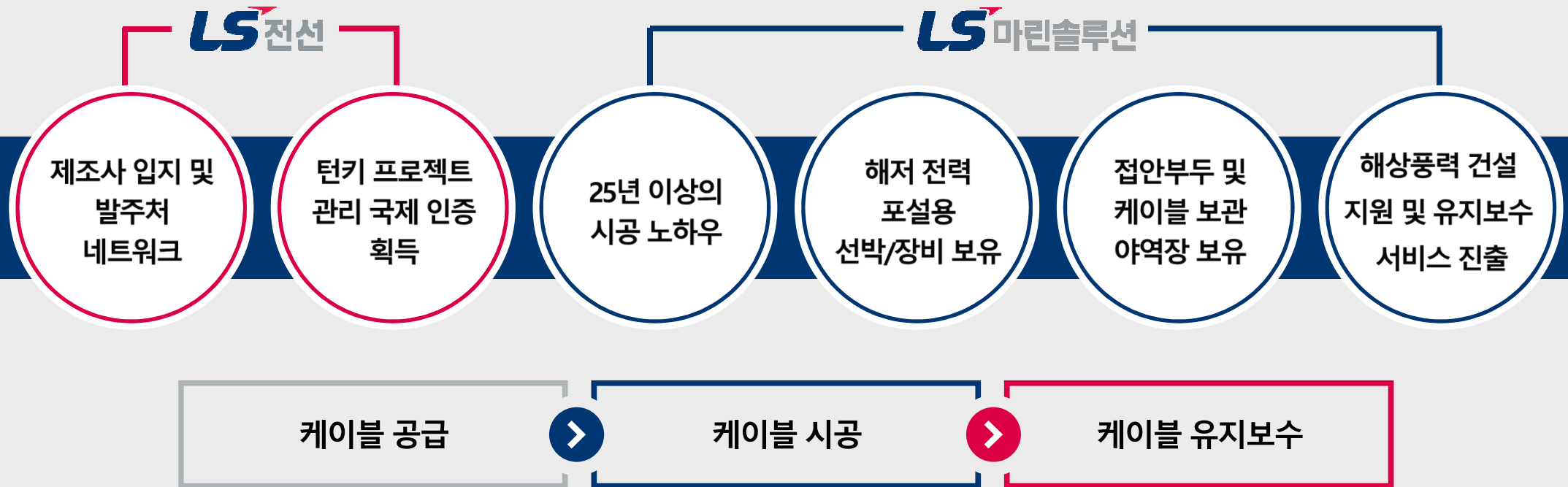
- 요코하마 존 프로젝트
- 제주2연계/3연계 HVDC 프로젝트 (국제 입찰)
- 국내 최초 상업 단지 전남해상1 프로젝트
- 아시아 연결 최장 길이 APG 프로젝트
- 태평양 횡단 NCP, ECHO 프로젝트



조사, 운용, 관리 분야 25년 이상 노하우 보유



LS전선을 통한 수주 확대 - 탄키 수주



S E S S I O N

02

Expansion of Momentum

“시장 모멘텀 변화라는 기회를 통한 성장”

Momentum Effect

해저,지중 케이블 시공 올 패키지 제공

해저+지중 케이블 종합시공업체

시공사업 전문성 강화 수직계열화
(’24.8 LS 빌드윈)

해저케이블 시공업체

해저 통신/전력 케이블
시공 및 유지보수

해양에너지 사업 분야 확대

해상풍력 건설 지원사업

해상풍력단지 유지보수(검토 중)

해상풍력산업
진출

수직 계열화를 통한 전력 시공의 All Package 제공

해저 시공과 지중 시공을
별도로 수행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공 부문 통합



수직 계열화를 통한 전력 시공의 All Package 제공

시공 All Package 기대효과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문의 전문성 극대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일관된 품질 유지로 고객 신뢰 확보
	원가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	◦ 운영 통합을 통해 원가 절감 ◦ 공정간 협업 강화로 프로젝트 완료 속도 향상
	원스톱 솔루션 제공	◦ 시공 사업의 통합 관리로 고객에게 원스톱 솔루션 제공
	수주 경쟁력 제고	◦ 유럽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턴키 입찰 방식 대응 ◦ 구조 재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규 CLV 투자로 역량 확보 및 글로벌 진출

시공 전용 선박 추가 도입

Global Top Tier 시공 선박

■ 선적 용량 **13,000 톤** ■ 제원 **140m x 30m x 8m**



※ GL2030 적재 중량 업그레이드 진행 중(4천 톤 → 7천 톤)

로드맵

STEP 01
LS전선 그룹
연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2024~ 2028

STEP 02
턴키사업
수주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2028~2030

CLB 및 CLV 보유로 맞춤 Solution 제시

Cable Laying Barge

극 천해부 작업 최적화	서남해 사퇴 지역 최적 솔루션
수심 5m 이내 극 천해부 구간 포설 및 매설 가능	9.6m 이상 사퇴 지역에서 동시 포설 및 매설 가능



Cable Laying Vessel

대용량·대수심 작업 최적화	다양한 해상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
13,000톤 급, 대수심 지역 포설 및 매설 가능	해상풍력, 송전, 부유식 해상풍력의 Dynamic Cable 포설 및 매설 가능	아시아,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 가능



Total Marine Solution Provider

배경

01 해저전력 케이블 유지보수 사업

- 1 **해저케이블 시장 성장**
IMR*(진단/유지/복구) 서비스 수요와
중요성 대두
- 2 **시장 활성화 부족**
해저 전력케이블 유지보수 시장은
비활성화 상태

*IMR(Inspection, Maintenance, Repair)

추진방안

- 1 **LS전선과의 협업**
유/무형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체계 구축
- 2 **시장 선점 및 리더십 확보**
유지보수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 리더십 강화



02 해상풍력 지원 선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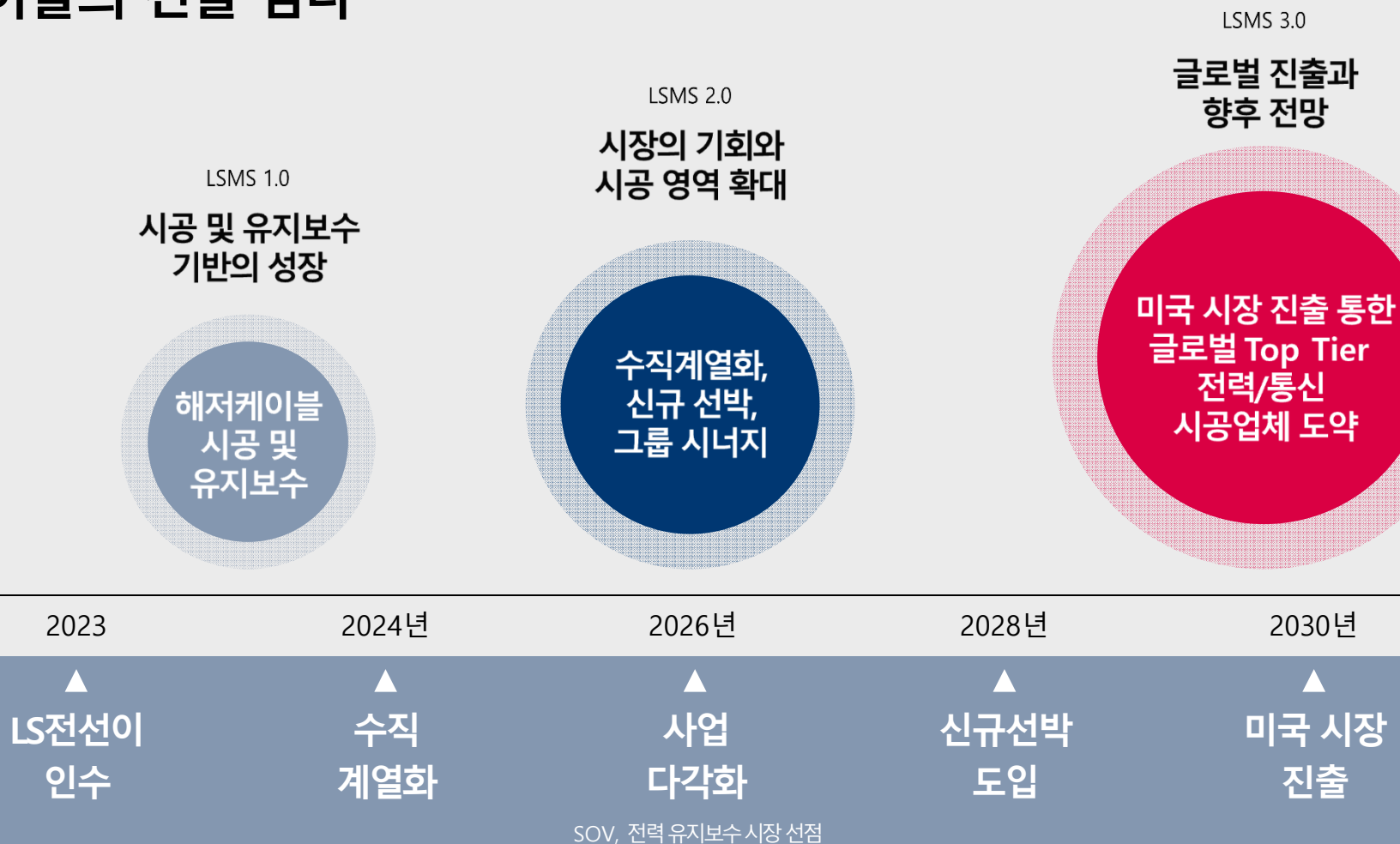
- 1 **해상풍력발전 본격화**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 선박
수요 대두
- 2 **사업 확장**
당사의 경험과 역량 기반으로 사업 확장

- 1 **(C)SOV 사업**
해상풍력단지에 체류하며 시공 인력의 숙소 등
서비스 제공
- 2 **컨소시엄 구축**
시장 인지도가 높고 다수의 지원 선박을 보유한 대만
DFO사와 컨소시엄 구축, 초기 시장 진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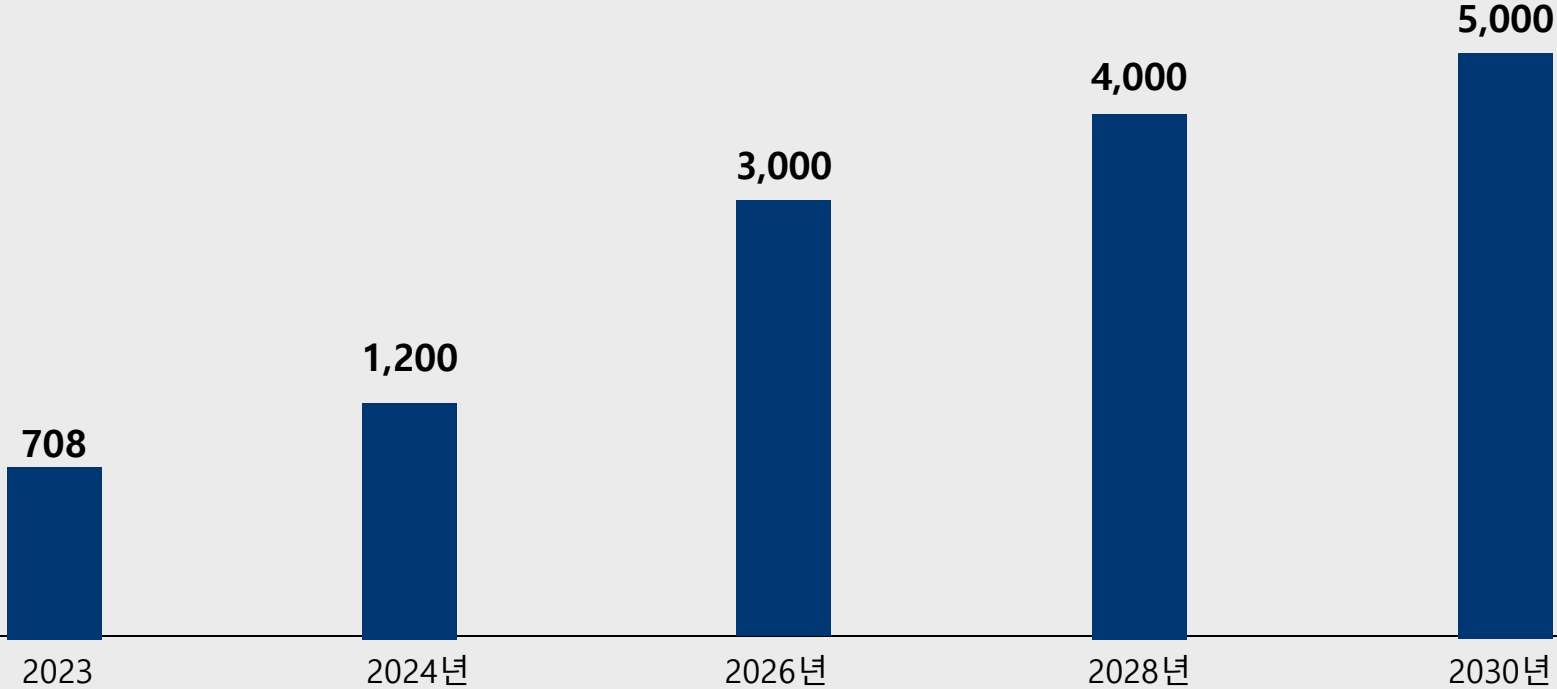
IR Summary

해저케이블의 선을 넘다



글로벌 Top Tier 해양에너지 기업

2030년 매출
5,000억원 달성



▲
LS전선이
인수

▲
수직
계열화

▲
사업
다각화

▲
신규선박
도입

▲
미국 시장
진출

SOV, 전력 유지보수 시장 선점